

“인생은 노력과 근면, 좋은 인연과 하나님의 축복이다”

80 평생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인생은 부단한 노력과 근면, 그리고 좋은 인연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후회없이 행복한 삶을 누렸다.

나는 슈바이처 처럼 의사이며 선교사인 할아버지와 감리교 목사이신 외할아버지, 그리고 사업가인 아버지와 여성운동가인 어머니 사이의 4 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어머니의 극성으로 6살 때 혜화국민학교에 들어가 졸업 후 사대부중에 입학했다.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가서 보수산 꼭대기 천막속에서 비를 맞으며 공부를 했다. 부산 피난 시절, 공부 끝난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인형을 만들어 달리를 벌었다. 그리고보니 ‘애국 소녀’였던 것 같다. 그 시절 피아노레슨도 받았고, 시를 써서 선농단 학교신문에 발표했던 문학소녀 이기도 했다. 시가행진을 할 때면 태극기를 들고 군악대 앞에 서서 보무도 당당히 걸었다. 수학을 가르치던 태상근 선생님은 이런 나를 무척 귀여워하셨다. 트럭을 타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바람이 무척 차다. 내가 입고 있던 양글라스웨터를 남녀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어보며 깔깔대던 추억이 어제인 듯 그림기 한이 없다. 여관에 들어가 왕소금으로 이를 닦는 친구들에게 치약을 빌려줘 호감을 샀다.

부고로 진학한 후 수복이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돈암동 집에서 학교가 있는 청량리까지 가려면 2개의 산을 넘어야 했다. 1시간 넘게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가끔 지각을 해서 벌을 서기도 했다. 학교가 을지로 6가로 이사간 후에도 마찬가지로 마친가치였다.

정운 영어선생님은 영시를 많이 가르치셨다. 그는 경상도 말씨로 “느그들 시집 잘 가면 된데이, 건강하게 착하고 정직하고 사랑과정이 넘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거라”

나는 정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렵게 사는 친구들에게 종종 전차표 한 권씩을 가방에 넣어주곤 했다. 고등학교 때 내 별명은 “박꽃”이다. 희고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고, 원만하다는 뜻

이다. 내 짝 김응덕이 지어준 별명인데, 누가 부를 때면 기분이 좋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어머니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에 입학했다. 사실 어머니는 내가 음악대학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대강당 채플시간에 찬송가 반주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셨다. 나의 어머니는 활발한 성격의 여성 운동가로 김활란 총장, 박마리아 부총장, 김옥길 총장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다. 우리집의 여자들은 모두 ‘이화’ 출신이다. 할머니, 고모 3명, 이모 3명, 언니 동생까지 모두 이화학당부터 이화여고, 이화대학을 다녔다.



▲ 결혼 사진(1963년 5월)

대학생 시절, 나는 주일학교 선생과 성가대를 했으며, 농촌계몽운동과 선교사업에 열중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또 취미로는 꽃꽂이에 흥미를 느껴서 임화공 선생님의 꽃꽂이 강의를 듣기도 했다. 나이들면서 나는 집정원에서 꽃 가꾸고 야채를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 남편은 골프를 잘 쳤다(핸디캡 6).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 우리부부는 서로 다른 취미를 갖고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스타일이다.

이대를 졸업한 후 나는 대한중석에 다니는 김부식 씨와 중매로 결혼을 했다. 선보는 날 나는 장안의 멋쟁이처럼 화려한 의상을 뽐내고 나갔다. 그런

데 나는 상대방을 만나자 ‘야코’가 죽었다. KS 마크(경기고등학교에 서울 상대)는 제쳐두고 흰칠한 키에 잘 생긴 얼굴, 어찌나 멋이 있던지 나는 첫 눈에 반했다. 처음 느껴본 연애 감정에 가슴이 뛰었다. 거절을 당할까봐 마음이 조리기까지 했다. 62년 가을에 약혼하고 63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초부터 64세에 원망 스럽게 내 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나를 ‘금이야 옥이야’ 하고 끔찍히 사랑해 주었다. 다시 태어나도 김부식은 나의 남편이다.

66년 초 남편은 영국 런던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나는 드레스 만드는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 때였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평소 “죽어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우리는 2살된 아들과 3



▲영국에서 한국 돌아오는 김포비행장(1968년 7월)

개월 된 딸을 데리고 런던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그곳에서 외교관 처럼 화려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자 힘들게 애들 키우고 살림만 열심히 했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박태준 사장이 런던에 왔다. 나는 그 기회에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한국 귀국을 원한다고 사장님께 부탁했더니 선선히 응해 주었다. 그러나 귀국한지 10개월 만에 이번에는 일본 동경으로 발령이 났다. 일본은 한국과 가까워 종종 한국에도 나가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어, 런던 보다는 좀 여유있는 생활을 즐겼다. 동경 백화점 학교에서 스시 만드는 법도 정식으로 배우고, 꽃꽂이 국제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1972년 봄, 미국에 사는 오빠가 동경에 출장을 왔다. 오빠는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어 형제 초청의 길이 열렸다고 미국에 와서 살자고 내게 권유 했다. 나는 외국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지쳐 있어서 미국행을 거절 했다. 그러나 남편은 평소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었던 차에, 처남의 제의를 적극 찬성했다. 72년 가을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 가족에게 3번 째 외국생활을 점지하셨다. 한국을 떠날 때 한 사람이 200달러씩 가지고 올 수 있던 시절, 외국 생활을 많이 한 우리 식구들은 대한중석 퇴직금을 비롯해 상당히 여유있는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온 돈은 별것 아니었다.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 있다. 남편은 밀바탕에서 다시 시작하는 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돈을 벌었다. 나는 애들을 잘 키웠다. 딸은 하버드대학을 졸업했고, 아들은 삼페인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나왔다. 나는 거의 반세기를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시카고는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나는 1973년 11월에 시카고에 오자마자 나하고 사대부고 8회 동기생인 닥터 차웅만 씨 집에서 가진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후 오늘날까지 동창회 모임에 빠진 적이 없다. 그만큼 사대부고는 나의 분신이다. 나는 동창회의 '대모'이다. 나는 음악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하는 세계공통언어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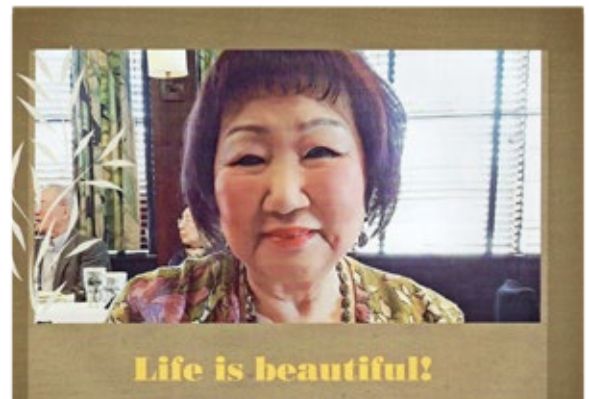
한다.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나간 후 나는 여성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1989년부터 창설된 여성회 합창단에서 단원, 부장, 고문으로 30여 년간 활동 했다. 2014년 시카고 문화회관에 혼성합창단을 창설한 일도 자랑스럽다. 올 4월 합창단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갖었다. 그밖의 활동으로는 여성회 회장, 복지회 이사, 북미주 이화대학교 총회장 등을 역임 했다. 현재는 이 지역사회의 단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문화회관 이사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삶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물심양면 으로 힘을 보탬뿐이다. 2009년 그동안의 나의 활동을 인정한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으로부터 지역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평생 살고보니...

Life is beautiful! Enjoy today's gift of life
Appreciate every moment of life
And live life with Kindness 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친한 친구가 내 생일에 쓴 시를 소개하겠다.

“당신의 눈물은 큰 물가 옆의 냇강
아낙네의 빨래터
조무라기 놀이터
타악타악 맛고 땀물 뺏는 소리
시끌 법석 피래미 쫓는 소리
모두 안고서 같이 흐른다
당신의 미소는 우리 모두의 심터
실패자의 등판에 용기를 얹혀주고
아픈가슴 기대는 어깨로
실컷 울게 내버려 두는 곳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는 곳
모두 껴안고 잠재우는 편한 자리”
- 손숙자 -



▲권오화(2019년 3월)